

일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정-현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하와이
파견대학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파견기간	2015.08 - 2016.05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하와이 대학교의 제일 큰 캠퍼스인 마노아 캠퍼스는, 호놀룰루의 위쪽에 위치해있다. 와이키키에서 버스로 약 20분 거리에 있다. 규모는 순천향대학교의 2.5배 정도 되며, 미국의 대학교답게 자유롭고 시끌벅적하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GYM, 수영장, 테니스 코트 등 운동시설과 아주 많은 학과 건물들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모든 수업은 절대평가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처럼 엄청난 경쟁을 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에 따라 학점은 나올 것이다. 대부분의 수업의 첫 시간에 실라버스를 통해 그 수업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확인 할 수 있다. 실라버스는 수강신청 전에도 찾아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자. 어떤 수업은 한국 대학교처럼 일방적인 수업도 있고 정말 자유분방한 토론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수업도 있다. 대연강의 수업들은 대부분 일방적이지만 그마저도 학생들 다수는 질문과 참여를 한다. 익숙해져서 많은 질문을 해보도록 하자. 과제는 수업마다 제각각이지만 구글 아이디를 통한 google docs 와 google presentation 을 통해 조별과제가 진행되므로 익혀두는게 좋겠다. 모르는 것은 적극적으로 교수에게 직접 혹은 이메일로 물어보자. 모든 수업들이 결석과 지각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 잘 참고하자.</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p> <p>-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p> <p>ISA(international students association) 은 가장 큰 국제학생 동아리이다.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꼭 참여해보도록 하자.</p> <p>MIX(manoa international exchange) 는 교환학생들을 돕는 오피스이다. 모르는 것은 이곳에 바로 물어보도록 하자. 교환학생 중에 해외에 나가고 싶다면 여기를 찾아가자.</p> <p>각 college마다 매우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고 외국인 학생도 환영하니 참여해보도록 하자.</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가을 학기는 습하고 비가 많이 온다. 봄 학기는 비가 잘 오지 않고 날씨가 정말 좋다. 햇빛이 강한 건 피할 수도 없고, 피하려고 노력해도 물거품이다. 화상입지 않을 정도로만 노력하자.</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호놀룰루는 딱히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밤은 어디서나 위험하니 주의하자. 섬의 다른 쪽들은 저녁이 되면 위험하다. 하와이는 홈리스들의 천국이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니 조심하자. 돈은 무조건 주지 말자.</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Atherton YMCA 기숙사 에 2학기 동안 살았다. 오프 캠퍼스라고 하기에는 학교 바로 옆이라 기숙사 생들도 많이 부러워했다. 여기 기숙사는 business college, tourism management college 와 아주 가깝고 도서관이랑도 아주 가까워 최고의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 이 기숙사는 술이 금지되어 있으며 10시 이후로 기숙사생 이외의 사람들은 더 머물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참 불편하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나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요리했다. 호놀룰루에는 가까이 2개의 한인 마트와 큰 일본 마트가 있어서 한국의 식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또한 한인 식당도 넘쳐난다. 입맛은 걱정 하지 말자. 직접 해먹으면 돈은 정말 아낄 수 있다. 이 참에 요리도 좀 배워보는게 어떨까. 하와이의 식비는 어마어마 하다. 한끼에 10달러 가까이 예상하자.</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기숙사와 학교가 아주 가까워 걸어서 통학했다. 시내교통은 the bus 라는 회사가 담당한다. 학생증과 함께 나오는 버스 패스로 모든 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버스 배차간격이 답답하므로 the bus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하여 시간을 아끼자. 주요도시라고 해봐도 호놀룰루가 끝이다. 다른 섬을 놀러 갈 계획이 있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한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편.</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40만원	
Fees	Support fee 같은 개념의 것은 없었다.	
보험료	국내 보험사: 80만원	
숙소	한 학기 300만원	YMCA Atherton double room
식비	월 20만원	대부분 직접 요리해서 먹음
교통비	UBER 타면 가끔 13달러? 학생증에 달려 나오는 버스 패스로 무료이용	
책값	150달러	책 값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교육 웹페이지 가입비, 요구되는 물건들
기타1		

기타2		
기타3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렌즈를 쓴다면 렌즈를 많이 챙겨오고 안경쓰는 사람도 렌즈를 몇 개만 사올 수 있다면 사오는게 좋겠다. 스노쿨링 할 때 참 아쉬웠다.

국제 운전 면허증을 가능하면 발급해오자. 여권 대신 쓸 수 있고 운전도 한다면 하와이를 100배 더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와이는 밖은 더울지 몰라도 건물 안은 정말 춥다. 에어컨이 쓸데없이 너무 강하다. 후드 하나 정도는 챙겨오는 게 좋을 것.

물건은 너무 많이 안 챙겨와도 거의 모든 것을 여기서 구할 수 있다.

MMR 주사는 꼭 2대를 맞았는지 검토하고 가자. 나 같은 경우, 1대 맞은 기록만 있었는데 하와이 대학교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가서 결국 1대 더 맞았다. 70달러.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일단 하와이는 미국이라고 느껴지기에는 인종이 너무나 다양하다. 하와이 원주민들부터 한국, 일본, 중국, 홍콩 그리고 본토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다. 따라서 인종 차별 같은 것들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 즉 적응하기도 아주 쉽다. 한국인 교환학생들이 아주 많고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동양인들이라 동질감을 느끼기 쉽다. 제일 먼저 친해지는 것도 한국인들과 동양인 교환학생들이다. 아주 쉽게 친해졌으며 끝까지 아주 잘 지냈다. 수업에서 만난 현지인 친구들과도 잘 지내서 좋았다.

일단 순천향대학교에서 하와이로 와서 느낀점이라 하면,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이걸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같이 다녀보고 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하면서 나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느꼈다. 그냥 학교 다니면서는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또 하나, 적극성을 얻었다. 영어를 조금 못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하면서 친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구나 했다. 원래 성격은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훨씬 수월하고 새로운 나를 찾은 거 같기도 하다.

하와이에서는 놀기도 정말 많이 놀았고, 도서관도 내 생애 제일 많이 가기도 했다. 주말마다 바다에 가고 서핑을 즐기고 하이킹을 했다. 시간이 맞으면 하와이의 다른 섬들을 쏘다니며 여행했다. 친구들과 차를 빌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항상 즐거웠고 행복했다. 내 생애 다시 이런 기회가 올까? 생각을 하면서 하와이 생활이 끝나갈쯤에는

너무나 아쉬웠다.

나에게 교환학생이란 재충전의 기회이지 않았나 싶다. 그 전에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고 죽을만큼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 저들과 경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으며, 그래야겠다는 의지를 쌓아서 돌아왔다고 생각한다.

1년을 한다면 학기 중 인턴을 고려해봐도 좋다. 2번째 학기 때, 유급 인턴도 잘 찾으면 있지만 자신의 시간을 좀 빼길 수 있다.

밤에 돌아다니다가 흑인 청소년 무리들을 본다면 돌아가자. 비행 청소년들인데 과격하다. 한 번은 공격 당한 적이 있다.

하와이에서 핸드폰을 개통했다면, 제때 요금을 내자. 1일 밀리면 벌금이 어마어마하다. 80달러를 내봤다.

하와이에서 계좌를 오픈했다면, 계좌 잔고를 잘 확인하자. 마이너스 통장이 되면 1번 결제 할 때 마다 35달러의 fee 가 붙는다.

Book buy back 기간(학기초 학기말)에 자신이 사용했던 책을 그대로 다시 팔 수 있다. 반값이지만 쓸쓸하다.

공공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있고 벌금이 100달러인가? 아무튼 비싸다. 하지만 담배는 공공연히 핀다.

엠블런스를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르지 말자. 한 번 부르는데 백 만원 가까이 든다. 아무리 아파도 택시를 타고 가까운 병원에 갈 것.

스쿠터를 산다면 아주 편한 학교 생활이 될 것이다. 놀러 가기도 편하다. 하지만 어짜피 버스는 공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원하는 것을 해보는 것도 좋다.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저 앞에 섬이 있다고 해서 괜히 가려고 하지 말자. 생각보다 아주 멀리 있고, 아주 운이 없으면 상어의 공격도 받을 수 있다. 시도했다가, 너무 힘들었다. 집으로 돌아간 게 기적이다.

바다에서 점프를 할 때, 파도가 센 곳에서는 하지 말자. 하더라도 구조요원이 있는 곳에서 꼭 하도록 하자. 구조 요원이 나를 구출하러 한 번 왔었다. 무서웠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Fall semester때 기숙사 창문 밖 풍경과 무지개.



친구들과 매일 해먹은 밥! 이걸 통해서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기도 했다.



알라모아나 센터 가운데 있는 무대인데 거의 매주 다양한 공연이 있다.



Fall semester때 들은 Choir 수업이다. 재미있었고 새로운 경험이였다.



Hawaii Stair way to Heaven 을 가는 길이다. 하이킹의 최고난도.. 약 10시간 하이킹을 했다.



노스쇼어의 한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다.

